

사회

야적장 방치된 光엑스포 시설물

광주시 2년전 400억 들여 개최 불구 제대로 관리 안돼

일부는 존재 여부도 몰라

4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쏟아부어 지난 2010년 개최한 '세계광엑스포'의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된 채 방치되거나 일부는 아예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심 억압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조망시설, 프로그램 등도 단 한 차례 쓰인 뒤 무용지물이 됐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중순 '광엑스포'와 '빛축제'를 끝내면서 120억원을 들여 설치했던 시설물 중 주제영상관과 빛음악분수를 포함해 사후활용이 가능한 장치 및

자재를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주제영상관과 빛음악분수는 연구용역을 의뢰해 문화콘텐츠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다른 시설물과 자재는 뚜렷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 청사 주변에 설치했던 경관 조명 장치는 광엑스포 이후 단 한차례도 가동을 하지 않았다. 144W LED조명 21종 등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광엑스포 총감독을 맡았던 '빛의 거장' 알랭길로(Alain Guilhot)가 디자인 및 프로그램을 맡았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이 시

설의 컨트롤 컴퓨터 장치가 청사 내에 보관중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엑스포 이후 재활용을 위해 광주시가 엑스포 재단으로 인계받은 점토블록 5320㎡와 소형고압블록 2252㎡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야적장에 방치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5% 수준인 점토블록 356㎡만을 무등경기장 야구장 보도블록 공사와 가로수 화단 보수 공사 등에 사용했을 뿐이다. 더욱이 금남로와 광주천변 등 광주 곳곳에 설치돼 형형색색의 빛으로 물

들었던 LED 조명시설 등은 엑스포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확히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LED 조명 등은 엑스포재단에서 관련 절차를 밟아 필요한 기관에 배분하거나 사용이 힘든 장치는 불용품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확인이 안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엑스포를 치른 뒤 재단이 해체되고 후속행사도 없이 남겨준 물품만 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시청 경관 조명 장치와 블록의 경우도 사용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4m 다리 아래 추락한 탱크로리

19일 오전 10시27분께 화순군 도곡면 한 교량에서 박모(57)씨가 운전하던 25t 탱크로리가 4m 아래 하천으로 추락, 전복됐다. 이 사고로 박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용백 기자 kyw@kwangju.co.kr

5·18 보상금 두번 타려다 덜미

광주지검, 이중 청구 4명 사기혐의 기소

광주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19일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보상금을 이중으로 타내려 한 혐의(사기)로 문모(5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980년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

동했던 이들은 내란중요임무중사, 내란부하수행,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복역 후 18년이 지난 199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과 함께 형사보상금을 받고도 올해 재심을 다시 청구해 보상금을 받으려 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각각 170~265일을 복역했으며, 1990년 제정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호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광주지검에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고도 올해 재심을 다시 청구해 보상금을 받으려 한 혐의다.

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올 초 재심을 청구해 3315만~5166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으려 했다.

이들의 범죄는 광주고검 재심 담당 공무원이 형사보상금 지급 장부에서 이중 청구한 사실을 발견,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광주지검은 범인은 물론 검찰이 육군본부 측이 제공한 원상 자료만을 토대로 재심 여부를 판단한 데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60~70년대 간첩조작 등 재심이 청구되는 사건 관련 서류가 전자화되지 않아 빛이 진 일로 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항소심서 5년 늘어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박 회장은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높아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받은 김양(59) 부회장에겐 형량을 깎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안아순(58) 전무는 징역 3년을 받고 벌금구속됐다.

재판부는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하는 바람에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불법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저축은행그룹 지분을 22%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최종 승인없이 대출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횡령 등 다른 범행도 보고받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이뤄진 신용공여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 아니라 김 부회장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억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연합뉴스

민노당 후원금 교사 등 19명 선고 유예

광주지법 판결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최근 옛 민주노동당에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 등 교사 18명과 지방공무원 1명에 대해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교사·공무원으로 성실한 근무한 점, 정기적으로 낸 액수가 적고 기소 훨씬 이전부터 추가로 후원금을 기부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가운데 국·공립교원 14명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교사·공무원 신분으로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정당법·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가입 시기가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찰, 손발 '척척'

여수·순천·광양 경찰 연계 여성 납치범 30분만에 검거

옛 동거녀를 차량 트렁크에 납치해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30여 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전남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지인 여수경찰청은 물론 순천·광양경찰, 고속도로순찰대까지 50여명을 투입해 신속하게 용의자를 검거했다.

1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58분께 여수시 봉개동 한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30대로 보이는 여성을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채 도주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112 종합상황실은 곧바로 여수경찰청은 물론 인근 순천·광양경찰과 고속도로순찰대에 용의차량 번호와 용의자 인상착의를 알렸고, 20여 분 뒤인 여수시 화양면 쪽으로 도망가는 용의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도망치던 이모(36)씨를 붙잡고 검거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피해자 박모(36)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나원침 (8634) 김종두



장준하 선생
인문사
규명하고
년위로 해야
5.16도
마찬가지...
이미 끝났어
도
공천
저명인
끝났어
MB분
5년도 지켜
판에...
할

실종 선원 10km나 헤엄?

○...바다에 빠져 실종됐던 40대 선원이 수시간 동안 최장 10km를 헤엄쳐 물로 나와 무사히 구조돼 화제.

○...지난 18일 제주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10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5km 해상에서 여수선적 안강망 어선 A호(89t)의 선원 최모(47·여수시)가 실종됐다고 동료 선원이 제주해경에 신고했다는 것.

○...제주해경은 최씨가 최장 5시간 이상 해상에서 표류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최씨가 발견된 지점이 A호가 정박한 곳에서 직선거리로 7km 떨어져있고, 실제 거리상으로는 9.8km나 돼 최씨가 해상에서 최장 5시간 이상 10km 가까이 헤엄친 것으로 추정.

/연합뉴스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만-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택1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안타대신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가발